

파리 기후협정 '간략(streamlined)' 협상문 발표

2015 배출감축협정을 위한 여러 제안을 담은 문서, '보다 분명한 그림' 제공

2015.7.26, Ed King/ 올해 말 타결될 2015 기후 협정에 담길 일련의 제안들을 담은 문서가 발표되면서, 협상문이 어떤 식이 될지 “ 조금 더 분명한 그림” 을 알 수 있다고 UNFCCC 관계자들이 밝혔다.

각국 정부는 83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문서를 협상준비 차원에서 활용하게 될 것이다.

UN은 “ 이번 문서는 파리에서 타결될 법적 구속력 있는 기후협정에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을지 처음으로 명료하게 보여준다” , “ 신기후협정을 채택할 때,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결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밝히고 있다” 고 성명서에 썼다.

‘ 파리협정에 포함될 가능요소 설명 비공식문서(non-paper illustrating possible elements of the Paris package)’ 라는 제목으로 나온 문서는 협정의 어떤 부분이 국제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공약들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지만,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정이 가능하다.

일부 국가—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더욱 높은 감축량을 법적 구속력 있게 명시한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상반된 평가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의 제니퍼 모건(Jennifer Moragan)은 공동의장이 “ 어지러운 내용들을 잘 정리(cut through the clutter)” 하여 일관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 간소하게 정리된 이번 협정문은 기후협상을 펼쳐나가는 데에 강력한 토대가 된다” 고 말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옥스팜(Oxfam)의 얀 코왈지크(Jan Kowalzig)는 기후재정에 대한 정기 평가와 관련된 문구가 “ 약하다” 고 평가했다.

본지(RTCC)가 받은 또 다른 이메일은 “ 제안된 협상문에는 인권, 토착민 권리, 성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 썼다.

이번 비공식문서의 발표는 2015 신기후협정 협상에 있어 반가운 진전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얼마만큼의 작업이 더 필요한지를 알려주기도 한다.

[번역_0727]<http://www.rtcc.org/2015/07/24/un-releases-streamlined-negotiating-text-for-paris-climate-deal/>

여러 가지 결정사항을 기술하는 데에 “ 해야 한다, 한다, 혹은 ~수도 있다(should, shall or may)” 와 같은 단어의 사용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다양한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공동의장은 시나리오 노트에서 미해결 문제를 처리하기 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 따라서 매우 제한된 시간을 최선으로 활용하고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 “ 모든 당사국이 가능한 빨리 사전 협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고 공동의장은 썼다.